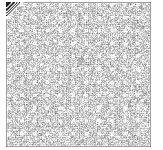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52호 2021년 8월 8일(나해)

연중 제19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74(73),20,19,22,23 참조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제1독서 | 1열왕 19,4-8

화답송 | 시편 34(33),2-3,4-5,6-7,8-9(◎ 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

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제2독서 | 에페 4,30-5,2

복음환호송 |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 요한 6,41-51

영성체송 | 시편 147(146—147),12,14 참조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유승록 라우렌시오 신부 | 등촌1동성당 주임 겸 17지구장

|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한 6,48)

성인 예비자 교리를 통해 만났던 다수의 예비 신자들이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동기와 이유로 본인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신앙 생활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자신의 선택 이전에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 체험도 역시 그러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러 갈래의 길 중에 사제 성소를 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의 생활이 이어질수록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믿음에 대해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해 일부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자신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요한 6,44)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도록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물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51) 살아 있는 빵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은 그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기적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눈먼 이가 보게 되거나,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되면 하느님을 믿겠다는 식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기적이 먼저이고 믿음은 그다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적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게 될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병자를 고쳐주고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고정된 생각과 완고한 마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믿음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빵의 형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빵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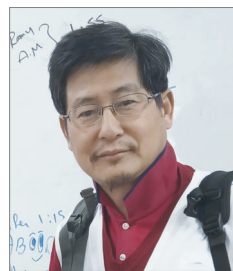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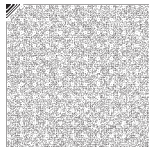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1열왕 19,7)

마른 바람 스치는 사막에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삶의 보따리를 내려둔 채, 성호를 긋고 늦은 한 끼를 해결합니다. 거친 광야에서 엘리야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으로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위장을 가득 채우고도 영혼이 허기지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다시 길을 나서야 하겠습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김용민 베드로 | 정형외과 의사

| 주님, 저를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대신...

1987년 12월 초 어느 새벽, 추운 날씨를 뚫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인지 혜화동 성당의 노란 나트륨 조명은 유난히 더 비장한 느낌으로 103위 한국 순교 성인화를 비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전공의 선발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소록도 근무 이후로 정형외과만을 염두에 두었는데, 그전 해까지는 지원자들의 사전 조율로 탈락자가 없던 정형외과에 그해에는 끝끝내 지원 초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막강한 인물들이 많아 저는 ‘유력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성당에는 왔지만, 단순히 “제발 저 시험 불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의 기도 내용은 “주여 오늘의 시험 결과를 전적으로 당신 뜻으로 받들겠나이다. 만일 제가 합격해, 정형외과 의사가 된다면 주께서 저를 쓰시겠다는 뜻으로 믿고 응하겠나이다. 어디든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신이 날 쓰려면 합격시켜 달라.’는 흥정 같은 느낌도 약간 듭니다.

오전 필기시험에 이어 다음은 면접시험. 면접장 앞 복도에 초조하게 서 있는 제 앞으로 먼저 들어갔던 응시자들이 모두 얼굴이 벌게져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들 저래?’ 했는데 그 이유는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알게 되었지요. 첫 질문 “왜 정형외과를 지원하였나?”에 지원자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슨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적성에 맞아서’ ‘남자다워서’ 등의 일반적 대답은 면접위원들로부터 ‘학문적 자세가 아니야.’, ‘남자다운 게 좋으면 깡패가 되지 그래.’ 등의 비난과 조롱만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던 저는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록도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형외과야말로 나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과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적과도 같

이 면접위원 교수님들의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자네가 소록도에 있었다고?”

이후로는 그분들께 소록도에 관해 제가 설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앞서 정형외과 선배 한 분이 소록도에서 3년을 지내는 바람에 교수님들이 그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다녀갔던 분들은 소록도를 희생과 봉사 정신이 가득한 이상향처럼 여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며칠 뒤 합격자 발표에 제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미사에서 하느님께 드린 약속에 대한 보답이었음을 믿습니다. 이후로 저는 중요 갈림길마다 혜화동 성당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그곳이 주께서 저를 쓰시려는 곳이라면 기꺼이 가겠나이다.”

이후로 지방 신설 의대를 시작으로, 아이티 대지진 긴급 구호, 뜨거운 도로를 걷는 대학생 국토대장정, 눈 덮인 2018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 경기장 등... 그리고 마침내 저는 국경없는의사회에 가입해, 총상 젊은이들이 가득한 팔레스타인, 적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형외과 의사로서 구호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느님이 가라 하시는 곳 어디든 기꺼이 가려 합니다.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아동청소년그룹홈 베리타스

“
 받에 숨겨진
 보석 같은 아이들을
 빛내 주세요
”

“팅부둥, 텅부둥(听不懂)”

우진(가명)이가 우리 집에 와서 했던 유일한 단어입니다. 북한 출신 엄마와 중국에서 함께 살았었지만 우진이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엄마는 북한에서 탈북한 후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하여 우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북자 출신으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아 결국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도 역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우진이는 엄마의 이러한 사정으로 아동청소년그룹홈을 찾게 되었습니다.

조성하 신부(도미니코 수도회)가 대표로 있는 아동청소년그룹홈 베리타스는 우진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우진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아이들은 제3국 출신이 많아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어려움, 정체성 혼란, 역사 인식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부모들은 북한식 교육 방식과 가치관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아이를 맡아줄 양육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 신부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삶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밍고의 집이라는 그룹홈을 운영하다가 아동의 수용 인원이 초과하게 되어 2021년 2월 베리타스를 하나 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그룹홈은 현행법상 1년 이상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족한 시설 환경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누수 때문에 집안 곳곳에 악취와 곰팡이 자국들이 있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또 비가 새는 것을 대비하여 지붕 보수 공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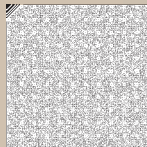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우진이의 꿈은 우주 과학자입니다. 아직 한국말은 서툴지만 다른 면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다른 아이들과 견주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피아노와 운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는 우진이는 힘든 탈북 과정을 거쳐 자신을 한국에 데려온 엄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주 과학자가 되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주 여행을 무료로 시켜 주고 싶다는 우진이의 꿈을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우진이와 같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건강한 보석으로 성장할 수 있게 사랑을 모아주세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되어 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80-003488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1년 8월 7일~9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아동청소년그룹홈 베리타스'를 위해 쓰여집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독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 혼인 서약의 의미와 가치 -

사랑하면 되지 혼인은 왜 하나요?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인간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은 혼인 서약을 통한 부부관계 안에서만 온전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혼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아예 ‘비혼’을 선택하려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1인 가구의 삶이 익숙한 젊은이 중에는 사랑과 혼인을 별개의 것으로 보면서, 가족에 대한 의무와 복잡한 관계가 많은 혼인 생활 대신 평생 독립적으로 개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동거 형태의 사랑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법적 책임 없이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사랑만으로 충분한 것일까요?

혼인식은 단순한 외적 합의나 계약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거나 사실혼도 친밀감을 느끼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식에서 공적으로 드러나는 서약의 형식은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의 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두 사람에게 깊은 소속감과 서로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줍니다.

“나는 당신을 남편/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서약을 통해서 부부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속하겠다는 확고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

며, 다른 이들도 그들의 결합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그 책임을 끌어안는 혼인은 동거와 같은 둘만의 사적인 약속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며 사회적 제도로서의 혼인은 이러한 상호 의무와 사랑의 성숙을 공적으로 보호해 주는 수단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결혼하지 않으려는 많은 젊은이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을 하고 삶을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노력이 드는 여행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아낌없이 내어 주는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혼인은 평생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는 사랑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충실히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삶은 남녀를 만드신 창조주의 축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인의 선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부부의 사랑을 더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부부는 더욱 내적으로 성장하며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가톨릭교회의 성경이 개신교보다 권수가 더 많은데 그 연유와 제2경전, 위경, 외경, 정경의 뜻을 알고 싶어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 쓰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기술자나 기술연대, 배경 등을 미루어볼 때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과 구분하여, 성령의 영감을 통해 인간 저자와 하느님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된 것이 확실한 책들을 교회가 공인하여 목록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인된 책들을 ‘정경’이라고 하며, 반대로 허위로 판명 난 책들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경으로 인정하는 성경 권수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는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총 73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개신교는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으로 총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권수뿐만 아니라 목록까지 다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만 7권의 차이가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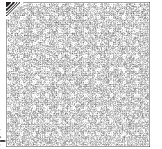
이 과정은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쓰인 언어이고, 두 번째는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다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경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유다교는 구약 성경에 대해 별도의 정경 목록을 확정하지 않은 채로 오랜 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다가 초세기 무렵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탄생하여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히브리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칠십인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리스어 번역본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현시대의 국제 공용어의 지위를 영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리스어가 국제적인 언어였던데다, 특히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 성경 권수 차이의 단서가 발견됩니다. 초대 교회가 주로 사용했던 이 그리스어 칠십인역 구약 성경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 권수가 많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히브리어 원본 없이 그리스어 번역본으로만 존재하는 책이 칠십인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다교의 갈등이 이어지던 1세기 말, 유다교는 얌니아 회의라는 이름의 모임에서 칠십인역을 배척하고 당시 사용하던 히브리어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교 교회는 382년에 열린 로마 주교 회의에서 칠십인역 성경에만 포함되어 있기에 그리스어로만 전해지던 구약 성경도 정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는 정경으로 인정하는 구약 성경의 권수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개신교에서 사용할 정경 목록을 다시 정하면서, 유다교 ‘얌니아 회의’의 결론을 차용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없이 그리스어로 전해지는 구약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개신교는 유다교와 동일하게 히브리어로 전해지던 39권만을 구약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 이후, 개신교는 그리스어로만 전해지던 책들을 개신교의 정경은 아니지만 가톨릭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기에, 경계에 서 있는 지위라는 의미에서 ‘외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가톨릭교회는 초대 그리스도교 전통을 이어받고 재정비하여,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총 46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공인하였습니다. 따



라서 이 책들도 정경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제2경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전에 등급이 있어서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경전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가톨릭교회는 해당 책들도 구분 없이 동일한 정경의 지위로 대해 왔습니다. 이 용어는 해당 책들을 외경이라 부르는 개신교에 대응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해당 책들 또한 온전히 경전에 해당되기에 또 하나의 정경이라는 의미에서 제2경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 ‘암니아 회의’가 있을 때만 해도 제2경전에 포함되는 책들이 그리스어 번역본으로만 존재했으나 지금은 히브리어 원본도 대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해 근처의 사막 지형입니다. 1947년, 이 지역에서 오랜 고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극도로 건조한 지역이라 수 세기 동안 큰 변형 없이 문서들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발견되었죠. 확인해보니,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까지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뤄 살았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남긴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중에는 놀랍게도, 그리스어 번역본으로만 존재했었던 제2경전의 히브리어 원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암니아 회의’가 개최될 당시에는 이미 소실되었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히브리어 원본으로 존재했던 책들을 칠십인역이 번역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경전이 단지 히브리어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 성당에 꾸준히 다니지 않지만 가끔 나갔을 때 성체를 영해도 되나요? 아니면 먼저 고해성사를 꼭 해야 하나요?

우리 교회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가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에 맞춰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 사전에 몸과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복

의 일환이지요. 이와 더불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법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915조)”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글귀는 중죄 중에 영성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을 포함하여, 성당을 꾸준히 다니지 않으시는 교우들께서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중죄 중 하나는 아마 주일미사를 건너뛰는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미사는 모든 신앙 실천의 기초이므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교회법 1247조 참조)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중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181항 참조). 이런 맥락에서, 성당에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다면 꼭 고해성사를 꼭 보시길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 속에서 영성체를 한다면 영성체의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요.

다만, 그야말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미사를 계속 봉헌할 수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주교회의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4항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주일미사를 빠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묵주기도 5단, 해당 주일미사의 독서, 복음의 봉독, 희생과 봉사활동을 통해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데스의 음악 언어로 드리는 미사곡 미사 크리오야 Misa Criolla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심의위원

서울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음악칼럼>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입석한 가운데 아주 독특한 미사곡이 연주되었습니다. 민속 의상 차림으로 낯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마치 주술인처럼 신들린 모습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여성 또한 경건하다기보다는 호소력 짙고 감정적인 목소리로 힘차게 노래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흥미로우면서도 묘하게 감동적인 음악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나라 아르헨티나의 작곡가 아리엘 라미레스 (Ariel Ramírez, 1921~ 2010)의 작품, <미사 크리오야 Misa Criolla>입니다.



<미사 크리오야>의 작곡가 아리엘 라미레스는 스페인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해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탱고 음악에 빠졌었고 1950년대 초반에는 유럽에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민속 음악가들을 만난 후, 민속 음악 쪽으로 진로를 정했죠.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방문했던 그는 나치 치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포로들에게 정기적으로 음식을 가져다주었던 두 자매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적인 작품'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실이 바로 이 <미사 크리오야>입니다. 마침 그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를 통해 전 세계 교회가 라틴어 대신 각국의 언어로 미사를 봉헌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때맞춰 라미레스는 1964년에 스페인어로 된 이 미사곡을 완성하고 이듬해에 레코드로 발표합니다. 가톨릭교회가 미사에서 자국어 사용을 허락한 직후 발표된 최초의 비(非)라틴어

미사곡이 된 것입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이 곡에 대해 “스페인어 텍스트에 토착 악기와 리듬을 결합한 놀라운 예술적 업적”이라는 기사를 썼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장에 달하는 앨범이 판매됐습니다. 이 곡은 남성 또는 여성 솔리스트에 코러스가 노래를 하고 차랑고, 껌나, 봄보 등 안데스 민속 악기들이 피아노와 함께 연주됩니다.

<미사 크리오야 Misa Criolla>란 제목은 ‘토착적인 미사’, ‘원주민의 미사’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곡은 다른 미사곡처럼 키리에(Kyrie, 자비송) - 글로리아(Gloria, 대영광송) - 크레도(Credo, 신경) - 상투스(Sanctus, 거룩하시도다) - 아뉴스 데이(Agnus Dei, 하느님의 어린 양)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영광송(Gloria, 글로리아)’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가사는 라틴어가 아니라 스페인어입니다. <미사 크리오야>는 파바로티, 도밍고와 더불어 세계 3대 테너라 불리는 호세 카레라스(José Carreras)의 녹음이 많이 알려져 있고, 아르헨티나 음악의 대모로 불리는 메르세데스 소사(Mercedes Sosa), 삼바 키필도르(Zamba Quipildor) 등 라틴 아메리카 유명 뮤지션들의 연주도 유명합니다.



같은 곡을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로도 들어봅니다.

케이팝(K-Pop)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범 내려온다> 같은 판소리의 한 대목이 현대의 옷을 입고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요즘, 우리 음악 스타일로 멋지게 작곡된 미사곡이 바티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공연장과 성당에서 연주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문화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도구

서울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응답하라 1978>을 볼 수 있습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주보 지면 중에서 문화면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날 문화 사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서울주보 문화면은 더 다양한 것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문화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중반 명동 주교관 숙소에 살 때, 주일 오후에 명동성당 마당으로 산책을 나가면 매년 놀라운 장면을 보곤 했습니다. 명동대성당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미사 네 대가 연속으로 봉헌됩니다. 그런데 오후 미사가 끝날 때마다 청년들이 마치 파도의 밀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청년들이 피약별 아래 줄을 서 있는데, 이 청년들이 서울주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대견하고, 예쁘고,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가끔 동창 신부들이 요즘 본당에는 단체에 들어갈 청년도 없어서 청년 사목이 어렵다며 걱정을 하곤 하던데, 저는 이 청년들이 왜 명동에 이렇게 집결(?)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얼마 후 몇몇 청년 신자들과 담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저희는 그냥 청년이 아니라 조금 늙은(?) 청년들이에요.”라며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대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늘 푸른 청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본당에서 들어갈 단체가 마땅히 없어요. 낡은 세대라고 하나요? 어쨌든 어디에 묶이는 것은 싫고, 미사 참례도 자유롭게 주일 오후에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식사도 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몇몇 강의를 조심스럽게 주일 미사 전후로 진행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미사만 봉헌하고 가는 것보다 한두 시간 성당

에 더 머무르면 도움이 될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좌 때 주임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신자들은 무조건 성당에 와 있어야 해.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 미사 참례는 못하더라도 마당에서 아이와 같이 놀고 있어도 괜찮아. 중·고등학생들이 친구 사귀는데 정신 팔려 기도는 못해도 돼. 성당은 성령의 궁전, 아버지의 집이야.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 후 홍보국에서도 문화팀을 만들고 주일뿐 아니라 주간에도 문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마침 사회에도 인문학 열풍이 불 때라 종교미술사, 인문학 강의들은 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친김에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공예 등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각자 좋아하는 취미가 다르다 보니 지원자들은 항상 넘쳤습니다. 지금은 문화학교도 생기고, 예술아카데미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기 전, 그림 그리기 낮반에서 신자들을 만났습니다. 10대에서 80대까지, 이십여 명이 모여 손너뻔 되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스케치 북에 선긋기를 하고, 원통과 삼각뿔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자매님과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저는 교수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젠 퇴직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는데, 서울주보를 보고 멀리서 배우러 옵니다. 명동성당은 몇십 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수업 오는 날이면 친정집 오듯 아침부터 설렙니다. 마치 어릴 때 순수했던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림 한 장 그리는 것이 그 같은 체험을 선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68년 8월 12일 신인식 바오로 신부(74세)
- 1977년 8월 15일 이기준 토마스 신부(93세)
- 1987년 8월 9일 진모덕 야고보 신부(59세)
- 1987년 8월 9일 이근영 사도 요한 신부(33세)
- 1988년 8월 10일 박희봉 이시도로 신부(64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 ②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교구장알림

영성심리상담교육원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 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온라인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 tpc@seoul.catholic.kr

순례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애 동행

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순례로 함께하는 희년의 기쁨, 9월애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순교자성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은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및 모임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8월21일(토) 10시30분 매월 세번째(토)
곳: 가톨릭회관 4층 413호(명동)

2) 유가족 대상별 소모임

때: 매주(목) 오후 18시30분~20시30분
대상: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와 이별한 가족
신청 문의 및 면담: 02)727-2495

2022년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안내

1) 1월~6월: 8월27일(금) 14시, 대성당

(오후 1시 대성당 입구에서 주점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7월~12월: 2022년 1월~2월 중 추첨예정 / 추첨일정 별도 공지)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14시·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만원(현금 또는 수표/계좌이체·카드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선형 개인전: 1전시실
장익주교 선종 1주기 추모전: 2, 3 전시실
전시일정: 8월11일(수)~16일(월)

1282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음 봉당 갖기 미사)

때, 곳: 8월1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봉당: 평양교구 대신리 봉당, 관후리 봉당 / 매주 봉헌되는 이 미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유튜브: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1 하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8월9일(월)~9월1일(수)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1) 명동 오전 정기강좌(10시30분~12시30분)

때, 곳: 9월6일~12월13일 매주(월), 명동대성당 내강의실(15주 강의)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개강미사: 9월6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정기강좌' 총 3년 과정(입문부터 5원까지 순차적 수강)			
입문	김성민 신부	3권	이현섭 신부
1권	김수규 신부	4권	김문희 신부
2권	김요한 신부	5권	김광두 신부
'나눔터학교' 정기강좌 졸업자 및 봉사자 대상			
요한복음		이주형 신부	

2) 청년, 직장인 성서못자리(19시30분~21시)

때: 9월8일~12월15일 매주(수) 15주 강의	
청년	마태오복음(이주형 신부) / 곳: 범우관 408호 대상: 35세 미만 청년 / 회비: 5만원(교재 지급)
직장인	입문(이שראל 역사, 김택재 신부) / 곳: 영성센터A203호 대상: 일반 신자 / 회비: 8만원(교재 지급)

인준단체 알림

모임

비대면 생활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둘째생활피정' / 최영민(예수회)

Zoom 온라인 기도모임

대상: 40세 미만 젊은이 / 문의: 010-4678-6956
때: 8월13일(금) 오후 8시·8월28일(토) 오후 7시
주관: 예수성심전교수도회·수녀회

모집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때: 8월23일~2022년 3월 / 대상: 만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 문의: 02)828-3600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2021년 가을학기 전례꽃꽂이과정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일반, 지도자, 최고지도자과정
지도교수: 전통가톨릭전례꽃꽂이 명장 이정자
개강: 9월7일(화)·9월9일(목) / 문의: 02)705-8718 행정실

202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미래 100년 새로운 창학 / 모집인원: 3,045명(수시 2,796명)
유스티노자유대학 신설(전원 온라인강의)
복지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탐정학과, 부동산경영학과 / 3년만에 졸업 및 전문자격증 취득
다양한 장학혜택 및 저렴한 학비 / 입학상담: 053)850-2580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에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무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수업시간: 19시~22시(주 5일 수업 예정)
교무실: 마포구 백범로 35 곧자가플라자
문의: 010-9278-9230 박서영 선생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
과정: 17세~21세(고등 과정) 2년 6학기제
입학: 1월·5월·9월 입학 가능 / 통학(기숙 가능)
교육: 영상제작(극·다큐), 시나리오, 미술·공예, 진로·전학
블로그: blog.naver.com/donboscoschool
곳: 살레시오미래교육원(양천구 신림3동)
문의: 02)833-0930(dybsbosco@daum.net)

대구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SW분야 입학

전국 최대 가톨릭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SW중심대학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부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와 컴퓨터정보학부에서 우수한 SW교육과 장학 혜택을 받으며 글로벌 SW인재로 성장할 수험생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문의: 053)850-2749(<http://software.cu.ac.kr>)

가톨릭대평생교육원 2021년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가톨릭전례꽃꽂이, 전례음악합창지휘, ITTE아로마테라피, 반려동물아로마지도사, 유러피안꽃꽂이, 보존화가공화, 심리상담사2급, 독서심리상담사, 노인미술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1급·2급(1~3단계), 복지원에서, 커피바리스타, 민화, 사진 예술작품창작반, 글쓰기학교, 한국예술가곡교창클래스, 클래식기타, 편곡법, 성악·오르간(개인 레슨) / 문의: 02)2164-6587, 8
곳: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심교정(부천 역곡)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seoul_jubo

서울주보 인스타그램 QR





뮤지컬

어린이 뮤지컬
〈무적의 삼총사〉

공연시간: (화~금) 15시, (토~일) 13시, 16시
(월 공연 없음) / 문의: 02)763-8233
입장료: 어린이 2만원, 성인 2만5천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까지 어린이, 성인 모두 1만8천원(8월8일~8월22일 공연 기간 중)

어린이 뮤지컬 <무적의 삼총사>가 8월22일(일)까지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써니, 치나, 풍이 세 친구가 학교 폭력에 맞서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내며, 아직은 공부보다는 노는 게 더 좋은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사실적으로 무대 위로 옮겨내어 아이들의 공감도를 높여 준다.



공연

2021산울림 고전극장
우리가 사랑한 영미고전

공연시간: 평일 20시, 주말, 공휴일 15시(화 공연 없음)
휴식하는 무늬: 8월4일~8월15일
음악극 '붉은머리 안': 8월18일~29일
입장료: 전석 3만원 / 문의: 02)334-5915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

<산울림 고전극장>은 산울림과 가장 주목받는 신진단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레퍼토리 기획 프로그램이다. 2021년 <산울림 고전극장>은 우리가 사랑한 영미고전이라는 주제로 '휴식하는 무늬'와 음악극 '붉은머리 안'이 소극장 산울림에서 공연된다.



공연

2021 국립합창단
〈서머 코랄 페스티벌〉

입장료: <베르디 레퀴엠>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코리아판타지> R석 3만원, S석 1만5천원
문의: 02)580-1300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20% 할인

국립합창단의 기획 공연 <서머 코랄 페스티벌>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인간의 숙명을 그린 세기의 걸작 '베르디 레퀴엠'이 8월24일(화) 19시30분에 공연되고, 작년에 이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재탄생한 '코리아판타지'가 다음날 8월25일(수) 19시30분에 공연된다.



전시

빛과 그림자의
판타지展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일반 1만8천원, 청소년 1만4천원, 어린이 1만원 / 문의: 02)774-498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1명 20% 할인

카게에의 거장 후지시로 세이지의 작품 세계를 테마별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 <빛과 그림자의 판타지展>이 10월12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열린다. 특히, '성서'를 테마로 한 섹션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승천>과 <성녀 클라라의 빛> 등을 소개한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cpbc 유튜브 및 cpbc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가톨릭평화방송 TV 프로그램] 중세라이브



중세라이브는 가톨릭 교우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이야기들만 선별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댓글을 통해 시청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본격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한 주간의 가톨릭 주요 이슈를 콕 집어 이야기해 드리는 '가톨릭 pick'부터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아멘삼촌에게 물어봐', 방송과 지면으로 못다 한 가톨릭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가톨릭 인사이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가톨릭의 눈과 귀로 소통하는 '황중호기심'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시간: 화 20시~22시 | 진행: 황중호 신부, 이영준 신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



월~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이 방송 1주년을 기념해 특별기획음반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음반 발매를 기념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손열음의 영상 축하 메시지를 비롯해 첼리스트 문태국,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cpbc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출연할 이 음악회는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라디오 실황 녹음 중계: 8월 20일(금) 11시~12시